

사자성어의 사회적 계도와 대중화에 관한 시론

김 일 환 *

<目次>

- | | |
|-----------------------|------------------------|
| I. 서언 | IV. 대중화의 필요성과 그 효율적 방안 |
| II. 사자성어의 개념적 정의와 분류 | V. 결어 |
| III. 사회계도적 기능과 정책의 향방 | |

<국문 초록>

한자문화의 독특한 산물인 사자성어는 대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고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네 자의 구조로 이루어진 함축된 의미는 한자성어만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사자성어는, 가나다순·주제별·유의성어·반의성어·중국과 한국·시대별·출전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자성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은 흥미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시급한 것은 아니다. 성어를 익히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인간의 보편적 삶의 지혜를 체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뜻이 깊은 교훈적·처세적·계몽적·상보적·화해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자성어는 공동체적 사회의식을 계도하고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미 중국정부는 20세기 중반 이래 수십 년간 국가적 목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자성어를 이용한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워 온 바 있다.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ilhwkim@kongju.ac.kr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슬로건은 임시방편이나 임기응변식의 단기적·단발적·정략적 선전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을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은 일면으로는 시대정신의 실종·공황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공감대가 부재하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정책이 아닌 유관 기관이나 신문매체에서 사자성어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 과정의 합리성이나 기준의 보편성이 요청된다. 일부의 지역적이고 현학적인 사자성어에 대한 대중 일부의 반응에서는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신랄한 비판의식도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자, 한문의 대중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전통교육체제가 아닌 인터넷문화 체제에 의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문화는 대중화의 산실이다. 한자성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닌 감성의 축제의 장으로 옮겨져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사자성어의 활용과 일상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혜가 확대·실천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통과 고전의 현대적 재창조일 것이다.

【주제어】 사자성어, 교훈적, 계도, 대중화, 인터넷문화, 감성의 시대

I. 서언

사자성어는 한자문화의 독특한 산물이다. 사자성어는 중국의 고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자의 전래 이후 많이 만들어졌음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고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자성어는 현대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자성어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체 내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른 언어와는 달리 표의문자라는 언어적 특성에다

네 자의 구조로 이루어진 함축된 의미는 한자만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금의 한자나 한문은 한글중심의 정책적 기조와 외국어 열풍현상으로 그 기능이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 방송매체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은 유난히 속도를 선호하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한자의 용도와 필요성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그 대신 한자의 영역을 알기 쉽고 읽고 쓰기 편한 한글이나 영어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 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가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글자 자체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또 일정한 문법적 형식이 없으며, ‘覆水不返盆·不俱戴天之讎·氷炭不相容’과 같이 본래 5~6자였던 것이 1~2자 생략되거나 줄어들어 ‘불구대천·복수불수·복배지수·빙탄’ 등의 4자나 2자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定省’처럼 혼정신성이 2자로 줄어든 경우와 ‘乞骸骨·破天荒’처럼 본래부터 3자로 이루어진 것도 많다.

사자성어는 단순한 설명식의 명사나 구절이 아니라 깊고 넓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고사인 ‘새옹지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자의 자의적 해석만으로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우리는 사자성어의 이러한 특성이 곧 장점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도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자성어만큼 그 효율성이 뛰어난 단어나 문장은 다른 언어체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¹⁾ 동북아 한자

1) 강태공의 고사 ‘복수불반분’, ‘복수불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영어의 격언인 ‘cry over spilt milk’는 과거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일을 한탄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와 비슷한 의미의 ‘복수불수’는 암기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엎지른 우유를 보고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캐나다 작가의 작품 속에 나오는 말이다. (진인숙, 『영어단어와 속어에 숨겨진 이야기』,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p.114. 참조.) 동서양의 고사나 격언을 비교하는 것도 대중화 작업의 일단이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4자 형식으로 된 초학교재가 성행했던 것도 결국은 이러한 교육적 효율성의 극대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하나의 예인 『사자소학』은 전반적으로 쉬운 한자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한자를 모르는 초학자들은 『천자문』과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며, 특히 『천자문』과 마찬가지로 사자일체로 된 간이한 문장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초학자들이 소리 내어 읽고 암송하기에 알맞게 되어 있었다.²⁾

따라서 조선시대의 초학자들은 반복하여 읽는 가운데 저절로 한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그로써 문장의 뜻을 풀이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충·효의 윤리와 일상생활의 예절규범을 몸에 익혀 실천케 하는 훈육 효과가 스며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본고는 사자성어의 사회제도적 기능과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자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첨단과학문명시대에 있어서 사자성어의 제도 방안과 대중화를 모색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사자성어의 함축된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 외에 학생들에게 그 교육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제고시키거나 지도방

될 수 있다. ‘배수지진·건곤일척’의 의미와 유사한 서양 격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Julius Caesar의 말인 ‘die is cast’는 ‘판은 벌어졌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결코 뒤로 되돌아갈 수 없게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cross the Rubicon.’은 ‘루비콘강을 건너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다.’ 또는 ‘홍망을 걸고 해보다.’, ‘결단을 내리다.’의 뜻이다. (같은 책, pp.124-125. 참조.)

- 2)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사자소학』은 『천자문』과 같이 네자로 하나의 구를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사자소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기존에 유행하던 『소학』과 함께 오륜 등의 인륜도덕을 밝힌 것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다른 초학교재와는 달리 필자미상의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첨삭이 가해졌던 관계로 그 내용과 체제가 일정하지는 않다.

안을 탐구한 연구물이 부단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을 떠나서 사회적 계도방안으로서 사자성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 연구물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그것이 사회적으로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는 반드시 시의성 담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의 제반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자성어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하다. 그 일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들 수 있다. 이 사자성어는 이미 20년 전에 유행했던 신조어이지만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현상의 부조리나 비리 또는 불협화음 양상을 비판적·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충격적 사건에 대응하여 저절로 형성된 일반 대중의 집중된 비판의식과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학적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자성어가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II. 사자성어의 개념적 정의와 분류

사자성어는 글자 그대로 네 자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성어로서 이른바 ‘고사성어’나 ‘한자성어’와는 대동소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키대백과사전』에서는 ‘사자성어’를 ‘한자성어’와 동일한 범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자성어 또는 사자성어는 주로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함축된 글자로 상황, 감정, 사람의 심리 등을 묘사한 말이다. 주로 4글자로 된 것이 많다. 일상생활이나 글에 많이 사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상을 빗대어 풍자적으로 유행

하는 사자성어도 있다.³⁾

그런데 『위키대백과사전』에서는 ‘한자성어’를 [Four-character idiom, 사자성어]로 영역하고 있다. 즉 “네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관용구나 속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논자가 본고에서 ‘사자성어’라 한 것은 “네 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고사성어”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연을 넓히면, “네 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고금을 막론한 어떤 고유한 의미를 지닌 관용구” 정도로 볼 수 있다.

원래 ‘사자성어’는, 고사성어, 한자성어, 일반 성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넓은 의미의 성어’라고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의 <한자사전>에는 ‘사자성어’조는 보이지 않으며, ‘고사성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사 성어는 ‘白眉’나 ‘蛇足’과 같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관련된, 비유적인 뜻을 지닌 속어로 굳어진 한자어이다. 그 속에는 선인들의 思考(사고)와 機智(기지), 그리고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따라서 고사 성어는 그 유래와 뜻을 알아서 일상생활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편, 『두산대백과사전』에서는 고사성어를 ‘유서 깊은 연유에서 생긴 말’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적 범주를 설명하고 있다.

신화·전설·역사·고전·문학 작품 등에서 나온 말이 포함된다. 이러한 말들은 교훈·경구·비유·상징어 등으로 기능하고, 또 관용구나 속담으로 쓰이어, 표현을 풍부하게 꾸며준다.

한국·중국에서 발생한 고사성어는 <어부지리>처럼 4자 성어가 대부분이지만, 단순한 단어로서 예스럽게 쓰는 <완벽>이나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계관>, 도둑을 뜻하는 <녹림> 등도 고사성어에 속한다. 또 흔히 쓰는 <등용문>, <미망인>과 같은 3자 성어도 있으며, 아예 8자, 9자로 된 긴 성구도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고사성어 역시 4자 성어가 많다. 그 출처는 『삼국유사』·『삼

3) 『위키대백과사전』의 ‘한자성어’조 참조.

국사기』 등의 역사서, 『춘향전』·『구운몽』과 같은 구소설, 『순오지』와 같은 속담집 등이다. 이 중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오비이락>, <적반하장>, <초록동색>, <함홍차사>, <홍익인간> 등이다.⁴⁾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고사성어’란 어떤 사건이나 史實의 교훈·처세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한 마디 속어로 정착되어 전해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통해 사건이나 史實이 지닌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문제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사성어 속에는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아울러 인간의 체험과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사성어를 익히는 것은 고금을 통한 인간의 보편적 삶의 지혜를 체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⁵⁾

이상에서 볼 때, 본고의 ‘사자성어’는 중국과 한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한자 4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의미하며, ‘한자성어, 고사성어’의 사전적 의미와 비슷한 범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⁶⁾

4) 『두산대백과사전』 ‘고사성어’조 참조. 한국에서 쓰이는 중국 고사성어는 270가지 정도이다. 이 성어들은 중국의 역사와 고전, 또는 詩歌에서 나온 말이 대부분이며, 그 전거만 해도 70권 남짓한 문헌과 200명 정도에 이르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 <일망타진>, <일거양득>, <천고마비>, <방약무인>, <배수진>, <조강지처>, <오리무중>, <철면피>, <천리안> 등 쉽게 쓰는 말도 중국의 역사에서 나온 성어이다. 또 <전전궁궁>, <유언비어>, <대기만성>, <자포자기> 등은 『논어』 등의 고전에서, <교회>, <청천벽력> 등은 시가에서 나온 성어이다.

5) 고사성어는 그 대부분이 우리의 생활감정이 되어 선인들의 사고를 형성하여 왔다. 또 그 중 우리말로 토착화되어 속담으로 일컬어지는 것도 적지 않다. ‘당구삼년폐풍월’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자성어 학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격언과 속담의 의미를 추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문 소양을 기르는 데 많은 힘이 되리라 믿는다. (한국고전신서편찬회 편, 『고사성어 큰 사전』, 홍신문화사, 2000. 머리말. 참조.)

6) 본고에서 고사성어나 한자성어가 아닌 사자성어를 논제와 소재로 삼은 이유는 4자로 이루어진 성어가 사회계도와 대중화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

현재까지 간행된 사자성어와 관련된 단행본은 대부분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자의 성독 기능과 운의 특성을 참작하여 새롭게 한자성어교육을 시도한 저서가 있어 주목을 끈다.⁷⁾ 성어는 지금도 사회 각 계층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자성어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현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정신유산이며 재창조될 수 있는 생활언어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사자성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물은 극히 적다. 이것은 사자성어가 학문적 범주와 개념적 정의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본질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사자성어 자체가 인간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중에게 상황에 맞는 격언이나 교훈으로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자성어는 학술적 체계보다는 본질적으로 현실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일상생활의 교훈이나 지침이 될 수 있는 현실 중심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연구된 석사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며, 박사논문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학술적 가치의 유무를 떠나 한 번쯤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석사논문의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고사성어를 비교한 경우이며, 고사성어 자체의 성격이나 내용의 체계적 분석이 시도된 연구물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다.⁸⁾

였기 때문이다. 사자성어는 다른 성어와는 달리 운을 이용하여 암송하기도 간편할 뿐더러 교훈적 요소가 많아 옛날부터 가훈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자성어는 네 자의 한자가 아닌 하나의 구체적 가치관이 담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7) 단산학당(박찬근 편저), 『성어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으뜸출판사, 2003. 참조. 교사용으로 편찬된 이 저서는 천자문 식으로 한 쪽에 4개의 성어를 엮어서 성독할 수 있도록 운을 달고 동시에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 참신한 전문 서적으로 볼 수 있다.
- 8)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위논문목록에 기재된 사자성어나 고사성어와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全賢淑, 「韓·中 同意異字型 四字成語 比較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李桂瑤, 「韓·中 四字成語의 對照 研究」,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金美英, 「韓·中 常用 四字成語 比較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현장교육과 관련된 사자성어에 대한 연구물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것은 한문전공자 가운데에서도 한문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초중등 교사의 끊임없는 학구열과 교육열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물 대부분은 효율적인 한문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사자성어를 이용한 교수학습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자성어를 유형별로 분류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① 가나다순
- ② 주제별
- ③ 유의성어
- ④ 반의성의
- ⑤ 중국·한국
- ⑥ 시대별
- ⑦ 출전별⁹⁾

이 가운데 ①, ⑥, ⑦항의 성어들은, 내용이나 주제로 볼 때 일정한 범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③, ④항은 일반교양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교육에 있어서도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효과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 하겠다. 한편 ②항은 주제의 내포와 외연의 축소 및 확대에 따라 내용의 연계성을 탐구할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권익, 「韓·中 漢字成語의 比較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玄盛峻, 「現代標準中國語의 常用四字成語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朴好順, 「現代 漢語 四字成語 研究:어법·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9) ‘가나다순’은 가장 보편적인 분류방법이지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성어의 첫 한자음을 알아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주제별’은 다시 대·중·소주제로 분리하여 구체화·세분화된 성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성어’는 유사성어·동의성어, ‘반의성어’는 상대성어·반대성어와 대동소이하다. ‘출전별’은 경사자집 또는 문사철로 분류할 수 있다.

수 있는 주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②항은 ③항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 주제와 유사의미의 성어는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특히 주제별 사자성어의 예를 살펴본다면, 수직적 인간관계로서의 효와 충성, 수평적 인간관계로서의 부부와 친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효에 관련된 성어로는 反哺之孝·昏定晨省·사친이효·부자유친·부위자강·풍수지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에 대한 효도의 의미를 지닌 유의성어를 살펴보면 위에 제시된 성어와는 조금 다른 범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혼정신성·반포지효·반의지희·동은하정·오조사정 등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표현한 성어이다.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의 <한자사전>의 ‘주제별 고사성어’에서는 ‘연애’에 해당하는 성어로서 愛及屋烏·愛別離苦·三秋之思·寤寐不忘 등 22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움’을 주제로 한 고사성어는 일별삼춘·전전반측·삼추지사·호사수구·일일천추·白雲孤飛·望雲之情 등 모두 16개의 성어를 등재하고 있다. 이 그리움을 대상별로 세분하면 연인·부부·부자·모자·고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소주제로 세분하여 유의성어로 살펴본다면, ‘남녀간의 그리움’을 의미하는 성어는 오매불망·전전반측·전전불매 등이고,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경우는 倚門而望·의문지망·의문지정·倚閭之情·의려지망 등이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백운고비·白雲親舍·망운지정 등이 되는 것이다.

한편 유의성어는 ‘절친한 친구’나 ‘아름다운 여인’의 경우와 같이 수십 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아름다운 여인’이나 ‘젊고 예쁜 여자’를 형용하는 사자성어로는 경국지색·丹脣皓齒·月下美人·花容月態·綠鬢紅顏·閉月羞花 등이 있지만, 실지로 넓은 의미의 ‘미인’이나 ‘미인의 모습’을 형용하는 성어는 50여 개에 이른다.¹⁰⁾

그런데 사자성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은 흥미나 학습동기를 유발

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시급한 것은 아니며, 성어의 교훈적 의미나 계도적 역할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뜻이 깊은 교훈적·처세적·계몽적·상보적·화해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가지 예로서 유의성어에 속하는 ‘교학상장’이나 ‘효학반’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육자한테는 가르침과 배움의 동반 성어나 표리로서의 상보적 의미를 지닌 교학상장보다는 “가르침 자체는 배움이 반이다.”라는 효학반의 정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¹¹⁾

Ⅲ. 사회계도적 기능과 정책의 향방

사자성어는 사건이나 史實에 담겨 있는 교훈이나 처세 등을 직설적 또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경구로 볼 수 있다. 고래로부터 사자성어는 인간의 생활감정이나 사고체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우리 선조들은 사자성어를 통해서 역사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

10) 2~4자로 된 성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人·天女·天香國色·天下一色·傾國之美·傾城之色·明眸皓齒·絕世美(佳人)·藍田生(出)玉 [뛰어난 인물의 의미로도 쓰임]·萬古美(絕)色·絕代花容·澹粧佳人·羞花閉月·解語花·解語之花·青蛾·蛾眉·氷肌玉骨·下降仙女·平沙落雁·沈魚落雁·紅粉青蛾·未央柳·金蓮步·靡曼·紅袖·紅裾·紅裙·紅脂·紅玉·花中花·麗人·佳麗·佳人·尤物·少艾·幼艾·粲者·玉人. 참고로 사자성어로만 이루어진 中國의 十全美人(十全完美) 즉 열 가지 미인의 모습이나 條件은 다음과 같다. 烏髮蟬鬢·雲髻霧鬢·蛾眉青黛·明眸流眄·朱唇皓齒·玉指素臂·細腰雪膚·蓮步小襪·紅粧粉飾·肌香佩薰.

11) 『禮記』 「學記」篇에 나오는 教學相長과 『書經』 「說命·下」篇의 惟數學半이라는 두 문구는 유의성어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차이가 있다. 즉 교학상장은 교와 학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성어이지만, 효학반은 남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일은 자기에게도 공부가 된다.”는 의미로서 가르침보다는 배움에 중점을 둔 성어라 할 수 있다. 효학반은 學學半·教學學半으로도 표현되며 절차탁마와 같은 자기수양과 발전의 의미를 지닌 성어로 볼 수 있다.

하고 지혜를 터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도 일부 유행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자성어는 인간의 사고와 기지·지혜를 형성할 수 있는 교훈이나 격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처럼 사자성어에는 이른바 <온고지신>이나 <鑑古戒今>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비추어 볼 때, 사자성어는 공동체적 사회의식을 계도하고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¹²⁾

본고에서는, 사자성어의 사회계도적 기능과 역할을 정부나 교육관계 기관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정책 제시와 정치·사회적 제반양상에 대한 평가 내용에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모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최근에 시행되었던 국가적 차원의 계도정책이나 슬로건·캐치프레이즈를 통하여 사자성어의 사회계도적 성격과 그 장단점 및 개선점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정부는 20세기 중반 이래 수십 년간 국가적 목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자성어를 이용한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워온 바 있다. 우리는 그 중의 하나인 ‘中華崛起’¹³⁾라는 정치적인 슬로건을 유념할 필요가 있

12)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논술이나 신문 방송의 사설과 칼럼 혹은 명사들의 에세이 등에서 고사성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주제와 논지의 정확도는 물론 비유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사성어가 역사적 체험과 지혜를 지닌 것은 물론 인간의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한 마디로 농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진 편저, 『동서양의 고사성어』, 해누리출판사, 2004, 머리말. 참조.)

13) <사자성어를 통한 중국 0000>, 다음(Daum) 블로그, 無0, [알면 유용한 생활 정보], 2006.6.12, 중화굴기는,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추진한 ‘韜光養晦’,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이 추진한 대국외교에 이어 후진타오[胡錦濤]가 새롭게 추진하는 외교 전략이다. 도광양회는 ‘칼집에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굴기’는 ‘산이 우뚝 솟은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굴기외교는 2003년 10월 하이난섬[海南島]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정비젠[鄭必堅] 중앙당교 상무부장이 주창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보고 전략적 경쟁자로

다. 굴기외교는 중국 정부가 2003년 말부터 채택한 외교노선이다.¹⁴⁾

중국정부의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대내외적 슬로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모델이다. ‘굴기외교’라는 슬로건은 이번에 폭발한 티벳 독립 시위 사태와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이나 슬로건은 비단 정치적 목적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교화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급한 정책이며 과제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 정부나 기관 또는 학계에서 ‘사자성어 정책이나 운동을 통한 한문의 재인식과 대중화’라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위의 중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정책과 맞물려서 전개·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작년 말, 새해를 앞두고 대통령 당선자가 2008년의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한 사자성어는 ‘時和年豊’이다.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는 의미를 지닌 이 성어는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글이다.¹⁵⁾ 당선자

규정한 상태이다. 崛起外交는 이러한 중국 위협론을 완화시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굴기외교의 이면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을 중시하고, 대국외교의 틀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치에 걸맞은 행동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주성과 독립성의 의미도 숨어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면서도 평화와 자주성을 견지하는 유연한 외교 전략이다. 참고로, 中國의 主席들의 政策基調를 表現한 四字成語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羈縻政策:毛澤東(1949~), 韜光養晦:鄧小平(1980년대~), 大國外交, 與時俱進:江澤民(1990년대~), 崛起外交, 有所作爲, 富國強兵:胡錦濤(2003.11~).

- 14) 앞의 자료 참조. ‘굴기’ 앞에 ‘평화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사용하는 까닭에 ‘和平崛起’라고도 한다. 그 뒤에 후진타오 주석이 2004년 1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을 순방하면서 중화굴기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노선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전의 대국외교를 통해 이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15) 시화연풍은 조선왕조실록에 6차례 나오는 사자성어로, 임금이 즉위할 때나 새해 어전회의에서 국정의 이상으로 내걸었던 문구다. 실록 ‘중종 45권’에는 한 선비가 왕에게 사면령을 자주 내리지 말라는 간언을 하면서 “어진 이를 구하고 간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정에 잘못이 없고 백성에 원한이 없으면 자연 ‘시화연풍’하여 재변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기록이 있다. 주호영

의 대변인은 “사회는 국민통합, 연풍은 경제성장의 뜻을 담고 있어 현대적으로는 화합의 시대를 열고 해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¹⁶⁾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윤리 도덕적 덕목을 역설·홍보하고 정책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은 지향해야 할 강령임과 동시에 한 시대의 질서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정신적 지주이며 터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적 슬로건은 임시방편이나 임기응변식의 단기적·단발적·정략적 선전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무관심하여 곧 잊혀지거나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슬로건 자체 내의 한계점이 있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은 일면으로는 시대정신의 실종·공황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공감대가 부재하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나아가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¹⁷⁾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자성어 슬로건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선자 대변인은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주로 지난 한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내놓는 데 반해 당선자는 새해의 희망이나 계획을 담은 성어를 많이 발표했다”며 “별도로 이 성어를 연초에 쓸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대선 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엔 2007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雨天作雨[어지러운 세상이 계속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는 뜻]’를 발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뿌리 깊은 나무>, cafe.daum.net/suming56 참조.

- 16)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목표는 그 가능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덧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17)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中國의 사자성어는, 뚜렷한 대내외적 목표의식을 지닌 정치적 리더의 선행적·미래지향적 국민계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자성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각인되기가 용이하다. 만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사자성어로 이루어진 이상향이나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무릉도원’이나 ‘태평성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향이나 평화로운 사회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수없이 많으나 그 구체적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주 태평스럽거나 자연적 상태의 욕심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의미하는 성어는, 태평성대·康衢煙月·鑿飲耕食·鼓腹擊壤·含哺鼓腹·耕山釣水·比屋可封 등이 있는데, 이 성어들은 성인의 덕에 교화된 태평한 사회인 이른바 ‘대동사회’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⁸⁾

그런데 유의성이라 할 수 있는 道不拾遺는,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도덕적 감화가 아닌 강력한 법질서에 의해 안정된 사회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단기간에 추구할 만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사회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비옥가봉’보다는 오히려 ‘도불습유’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18) 大同은 고대로부터 동양인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다. 서양의 유토피아에 해당하는 동양의 이상사회로 ‘武陵桃源’이나 『莊子』의 ‘無何有之鄉’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동사회는 이상에 불과할 뿐,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인문주의사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사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흔히 ‘太平聖代’나 ‘太平盛世’를 의미하는 ‘比屋可封’, ‘鼓腹擊壤’, ‘鑿飲耕食’ ‘含哺鼓腹’ 등은 모두 堯舜시대를 의미하는 성어로서 백성들에 대한 통제수단 즉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 ‘自然的理想社會’를 나타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 이러한 사회에서는 착한 백성을 제어할 법과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로, 比屋可封은 ‘집집마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줄만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純善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고, 『十八史略』 第一에 보이는 鼓腹擊壤은 ‘배를 두드리고 밭을 구른다.’는 의미로서 요임금시대의 의식주가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의 전경을 표현한 것이며, 『莊子』에 나오는 含哺鼓腹도 비슷한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마신다는 鑿飲耕食도 요임금시대의 태평하고 안락한 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IV. 대중화의 필요성과 그 효율적 방안

사자성어가 사회계도정책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책으로 입안된 다소 전문적인 사자성어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매우 생경한 단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경우, 사자성어의 참 뜻이 퇴색되거나 오도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유관 기관이나 신문매체에서 사자성어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 과정의 합리성이나 기준의 보편성이 요청된다. 지엽적이고 현학적인 사자성어에 대한 대중 일부의 반응에서는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신랄한 비판의식도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를 하나 살펴보자.

우리나라 대학교에 주로 보급되는 <교수신문>은 매년 연말에 1년 동안의 정치적 공과나 현실 상황을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엽적이고 현학적인 성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전반적 반응에는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려할 정도의 신랄한 비판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신문>에서는 작년에 ‘自欺欺人’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이나 기준 및 성어의 내용은 대중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볼 때 일부분 편파적이고 냉소적이면서도 현학적인 모습으로 비추어 지기도 하기 때문에, 논자는 그 선정 방법은 차치하고서 그 시행 자체의 의미나 가치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¹⁹⁾ 극소수 전문적 지식

19) 이윤영, <교수신문 선정 ‘거짓으로 가득 찬 세대 풍자’>. 2007년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自欺欺人’이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15일부터 20일까지 교수신문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전국 국·사립대 교수회 회장 등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자기기인’이 뽑혔다고 23일 밝혔다(서울=연합뉴스, 2007.12.23 이윤영 기자). 교수신문은 국내교수 7인(국문학, 한문학, 중문학, 정치학, 민속학 전공)에게 사자성어를 2개씩 추천받은 후 5개를 선정해 설문에 부쳤다. ‘자기기인’이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으로 주자의 어록을 집대성한 책인 『朱子語類』와 각종 佛經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다. 자신도 믿

인의 이러한 모습들은 대중들 특히 일반 네티즌이나 한자성어를 잘 모르는 사람을 염두에 둔다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전문가나 지식인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내 걸은 계도적 지침이나 정책이 아닌 일부 지식인들의 후행적이고 냉소적인 정치세태 비판의식에서 표출된 성어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²⁰⁾ 이 점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윤리나 도덕

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남까지 속이는 사람 또는 도덕 불감증 세태를 풍자하거나 윗말을 경계하는 성어로 널리 쓰였다. S대 A교수는 “자기기인은 도에 넘친 욕망이 분출돼 나타나는 행동”이라며 “1년 내내 한국사회를 뒤 흔든 학력위조, 논문표절, 정치인과 대기업의 도덕 불감증 행위 등도 분수를 모르는 탐욕에서 기인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C대 S교수는 “자신이 믿지 않는 말로 남을 속인다고보다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스스로 도취돼 자신까지 속이는 지경까지 온 것”이라며 ‘자기기인’ 세태를 비판했다. 한편, 지금까지 선정된 사자성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五里霧中(2001), 離合集散(2002), 右往左往(2003), 黨同伐異(2004), 上火下澤(2005), 密雲不雨(2006), 若烹小鮮(2007, 노무현 정부), 時和年豐(2008, 이명박 당선인)

- 20) 다음(Daum) 블로그, 마늘00, <사자성어>, 2006.12.19. 참조. 일반네티즌과 대학교수의 비판적 시각을 담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동별이, 그리고 상화하택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혼계가 어떠한 무게로 다가서고 있을까? 물론, 내 지적에 대하여 실용주의적 시각만을 강조할 뿐이라 반문하겠지만, 애초 한 해를 정의한다면 그 정의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스스로가 껴안을 수 없다면, 최소한 그 과정 전반에 대한 호혜적인 관심은 차지하고 냉정한 추궁이라도 따라야 할 것이지만, 덩그러니 남겨진 사자성어의 뒤편에 그들의 도도함만이 남겨있다.(다음 블로그, 마늘00, <사자성어>, 2006.12.19.)”. “사자성어에는 복잡한 정치학이 깃들여 있다.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즐겨 만들고 퍼뜨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게 아니다. 사자성어라는 틀로 우리 역사를 보는 것은 중국인이 만든 틀 속에 우리의 앞날마저 가두는 일이다.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맥락이 분명히 있다.(B대 K교수)”. 논자는, 선정자가 사자성어의 숨은 뜻을 간과하고 피상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 특히 2005년을 풍자한 ‘上火下澤’의 경우는 당시의 상호 이반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풍자한 것이지만, 주역 <火澤睽>괘의 전체적 의미는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각자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용어 등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의 경우나 2005년 말에 선정된 『주역』의 ‘上火下澤’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인 철학·사상적 학술용어라 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일반 대중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히려 식자층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비취질 수 있다. 전문지식인들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나 인식의 간격을 축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에서 발췌한 한 네티즌의 비판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보자.

누가 뭐라 하여도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 극단의 선택 또한 불가하다. 그러나 이 명제는 너무도 쉽게 무시가 되고, 최종의 결론만으로 과정 모두를 평가한다. ‘엘리트 스포츠 주의’와 전혀 다르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 아니 전면에서 강조되는 ‘winner takes it all’이 마땅한 것이 아님에도 이미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만큼 발전된 것임에도 대증요법(對症療法)의 부당함을 말하던 그 입으로 이제 결과의 부존만을 질타하는 ‘밀운불우’가 삭막하게 다가올 뿐이다.²¹⁾

이것은 2006년 말에 선정된 ‘밀운불우’에 대한 한 네티즌의 의견인데, 1년 동안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평가하는 일부 냉소적 지식인들의 소극적이고 후행적인 시각과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네티즌들의 편중된 시각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비판적 논조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글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는 현금에 있어서 사자성어의 대중화를 모색할 경우에는 더욱 열린 시각으로 이런 비판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한자, 한문의 대중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중화는 바로 전통적 교육체제나 방법이 아닌 인터넷문화에 의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문화는 대중화의 산실이다. 사자성어의

21) 다음(Daum) 블로그, 마늘00, <사자성어>, 2006.12.19. 참조.

대중화 방안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검색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검색순위 1위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이미 국내 최초로 <한자사전>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매일 새롭게 게재되는 ‘오늘의 고사성어’란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나 기사를 검색하는 일반 네티즌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고사성어를 접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교양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검색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층에게 한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네이버의 <한자사전>에서는 사자성어를, 가나다순으로는 1353건, 주제별로는 8개의 카테고리과 49항목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도 주목된다.²²⁾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한자교육전문 사이트인 <e-hanja>에서는 매일 <오늘의 단어> · <오늘의 고사성어> · <오늘의 천자문> · <오늘의 사자소학>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주제별 고사성어>란에서는 고사성어를 62개 주제로 분류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게재하고 있다. 교양서나 전문 서적을 접하지 않고서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는 종전의 우리의 지식체제를 뒤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습득한 지식을 머리 속에 저장하여 암기하거나 활용하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얻은 적절한 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활용, 응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대에 접어든 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다.

사자성어의 대중화를 향한 창구는 여러 개가 있다. 정부와 교육계 그

22) 8개의 카테고리는 성품, 관계, 언행/마음, 정치/학문, 생활, 윤리, 교훈, 기타 등이다. 예를 들어 ‘정치/학문’ 카테고리의 항목의 경우 그 내용은, 전쟁 · 출중 · 독서 · 횡포 · 학문 · 태평 등이다. 한편 사자성어는, 대학입시나 전문 대학원 입시, 국가고시 등에서 ‘적성’, ‘적격성’을 강조하면서 단순 암기를 통한 지식내용을 배제한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측정하는 추세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

리고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비롯하여 네티즌을 포함한 대중들은 모두 창구가 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목별로 나누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부나 교육계 및 유관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캠페인
- ② 한문학자, 한문교육종사자 등 전문지식인의 사명감과 부단한 지표 계발
- ③ 교수신문, 대학학보, 일간지 등의 신문매체와 방송매체의 사회제도적 창구 역할
- ④ 네티즌들의 비판이나 해학적 사자성어의 적극적 검토

물론 이러한 조목들은 하나의 제안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시의 적절한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테면, 조목 ①의 경우는 인성과 가족애, 배려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으며, ②에 있어서는 일반 대중들의 입장과 견해를 적극적·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③의 경우는 보다 신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요구되며, 조목 ④의 경우는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소재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어

첨단과학문명의 시대에 한자나 한문의 역할과 관심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나 한자어, 한문 그리고 간혹 등장하는 다소 생경한 고사성어나 한자성어 역시 더 이상 지식인들의 전유물인 시대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몇 번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 전문지식인이나 알 만한 상세한 정보가 무수히 제공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자성어는 한문의 특수한 형태이다. 심오한 사상과 교훈적 내용이 온축되어 있는 암기하고 쉬운 한자어이다. 이러한 유산을 도외시하고서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살찌울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의 홍수는 인간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현금의 사회상황을 놓고 이미 정보화시대를 지나서 감성화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²³⁾ 전술했듯이, 소유하고 저장하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넘어 활용하고 응용하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로 접어든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더욱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자성어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지식의 축적이 아닌 감성의 축제의 장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본다.

사자성어의 사회적계도화와 대중화 작업은 전문지식인들의 몫만은 아니다. 사자성어의 활용과 일상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혜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통과 고전의 현대적 재창조일 것이다.

23) 사자성어의 역할은 우리사회가 이미 ‘감성화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감성화시대에 대해서는 황의홍, <이명박 정부 75일, 왜 100만명이 탄핵 했을까>, 오마이뉴스, 2008.5.5 참조. 자유기고자인 황의홍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드림소사이어티를 주도할 선진국”이라고 입을 모아 전망한다. “GNP 1만1천 달러가 넘는 국가는 30여개 국가인데 이들 부유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비트렌드가 꿈과 감성을 중시하는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이다.”(롤프엔젠). “석탄이나 석유가 아니라 상상력과 이미지[story]가 생산자원이 된다. 모든 상품은 이야기와 이벤트가 첨가될 때는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짐 테이터).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화시대를 지나서 소비의 주요 관점이 질과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화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자제품을 살 때 회사별로 기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119011>.)

<參考 文獻>

『禮記』 『書經』 『四字小學』

『위키대백과사전』 『두산대백과사전』

Andrew Kim, 『영어고사성어』, 시사영어사, 1991.

단산학당(박찬근 편저), 『성어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으뜸출판사, 2003.

이동진 편저, 『동서양의 고사성어』, 해누리출판사, 2004.

이수철, 『풀어 본 고사성어』, 정진출판사, 1997.

진인숙, 『영어단어와 속어에 숨겨진 이야기』,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고전신서편찬회 편, 『고사성어 큰 사전』, 홍신문화사, 2000.

<다음(Daum)> <http://www.daum.net>

<네이버(Naver)> <http://www.naver.com>

<e-hanja> <http://www.e-hanja.com>

<교수신문 선정 ‘거짓으로 가득찬 세대 풍자’>, 이운영, 서울:연합뉴스, 2007.12.23

<이명박 정부 75일, 왜 100만 명이 탄핵했을까>, 황의홍, 오마이뉴스, 2008.5.5

<사자성어를 통한 중국 0000>, 다음(Daum) 블로그, 無0, [알면 유용한 생활정보], 2006.6.12

<사자성어>, 마늘00, 다음(Daum) 블로그, 2006.12.19

<뿌리 깊은 나무>, 다음(Daum) 카페, cafe.daum.net/suming56.

Abstract

*An Essay on the Social Guidance and Popularization of
Four-Character Idiom / Kim Il Hwan**

The four-character idioms are the unique products of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they were mostly come from the historical facts of China and Korea. These four-character idioms have implied meanings, which is their only strong point.

They are classified by Korean ABC orders, topics, synonyms, antonyms, chronological orders, and sources etc.

In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se four-character idioms because they are not difficult to understand, furthermore, they have instructive, conductive, enlightening, mutually compensating and compromising meanings. Four-character idioms are justified in that they should progress towards enlightening a communal consciousness and leading our lives wisely.

Our country's slogans were just temporary and politically advertised. Especially when organs concerned or mass media select the four-character idioms, they have to consider process rationality and the standard universals seriously.

Popularization of Chinese characters has already begun. It has done not by education by internet culture. Internet culture is the products of popularization. Now is the time when we have to change our viewpoints for Chinese character idioms from the field of stored knowledge to that of emotional festivals.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ilhwkim@kongju.ac.kr

Enlightenment and popularization of societies by using four-character idioms are not merely the intellectuals' duties. We should try to enrich our lives through four-character idioms. That's the one way of recreating the classics.

【Key words】 Four-character idiom[四字成語], a historical fact[故事], instructive[教訓的], enlightenment[啓導], popularization[大衆化], emotional period[感性的 時代]

투고일 : 5월 1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